嶺南地方의 4·5世紀代 陶質土器와 甲冑*

申 敬 澈**

I

영남지방의 4·5세기대 고고유물 중, 陶質土器와 甲冑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높다. 그것은 이러한 자료가 격동·격변기였던 4·5세기대의 문화적·정치적·사회적 변화의 추이를 치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료에 대한 정당한 推論에 의하여, 영남지방에 있어서 諸 政治集團間의 역학관계, 나아가 당시의 국제관계까지 엿볼 수 있는 최적의 자료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영남지방의 4·5세기대 陶質土器와 甲冑를 개관하면서 여기에서 적출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언급해 보도록 하겠다.

II

陶質土器는 다같이 還元焰燒成이기는 하지만 平窯에서 燒成된 前 時期의 瓦質土器와는 달리 高火度를 낼 수 있는 登窯에 의해 굽혀진 硬度 높은 土器이다.

보통 新羅·伽耶土器로 불리우는 土器가 그것이다. 따라서 陶質土器의 發現에는 새로운 요법, 즉 登窯의 등장이 필수적인데 이 登窯는 中國南朝의 磁器文化의 그것으로 부터 배웠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한편 한반도 남부의 특유한 土器文化인 陶質土器의 출현은 木槨墓의 등장과 軌를 같이하고 있는데, 그 시기는 대체로 3세기 후엽의 어느 時点에서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이 글은 한국대학박물관 협회 1990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발표 요지를 정리한 것임

** 慶星大學校 史學科 敎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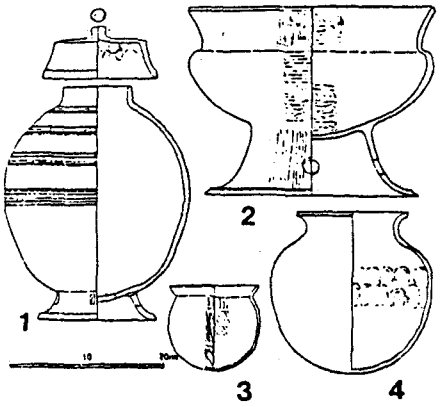
이와 같이 陶質土器는 한반도 남부사회가 中國南朝와 직접 교섭하는 과정에서 中國南朝의 磁器窯法의 습득에 의해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극히 높다는 점에서, 그리고 墓制上으로 한반도 남부사회의 일대변혁을 보여 주는 木棺墓에서 木槨墓로 전환하는 시기에 출현한다는 점에서 陶質土器 그 자체는 한반도 남부사회의 발전, 즉 국가의 발생을 해명할 수 있는 핵심자료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陶質土器文化의 최초의 發現場所는 中國南朝와의 직접적인 교섭의 중심역할을 한 당시 百濟의 중심지였던 漢江유역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는데, 그러나 최근까지의 조사성과로 보는 한 영남지방이 陶質土器의 발생지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그것도 영남지방내에서 新羅(경주)보다도 특히 金海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 하류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陶質土器의 발생이 한반도 남부 각지에서 동시에 만들어진 多元的인 것이 아니라, 낙동강하류역의 一元的인 發現에서 시작되어 영남 각지 및 한반도 남부 전역으로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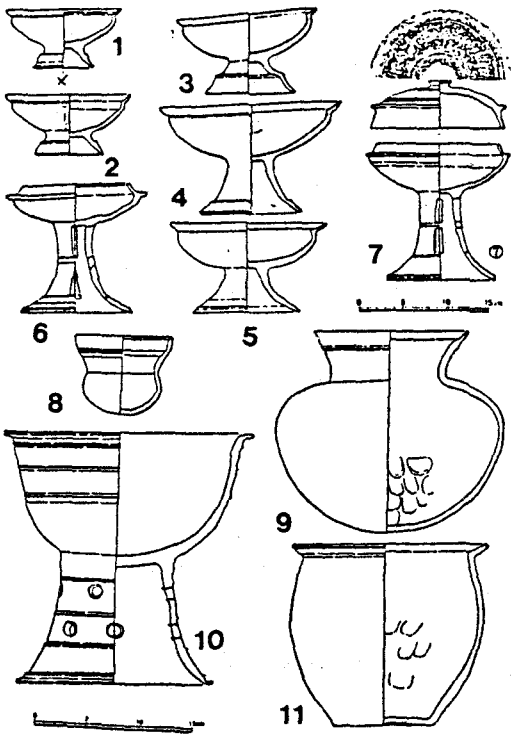
3세기 후엽에 나타난 이러한 陶質土器는 「伽耶土器」와 「新羅土器」의 二大樣式土器로 분화되기 전인 4세기까지의 土器文化는 보통 「共通樣式土器」 혹은 「古式陶質土器」로 이해되고 있다(第1圖). 그런데 영남지방 4세기대 陶質土器가 樣式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한 地域色을 나타내는 형식차는 인정되고 있다. 이를테면 金海를 중심으로 하는 낙동강하류역의 경우 外反口緣의 無蓋式高杯(第 1圖 Ⅱ群의 1, 7~9 및 第 1圖 Ⅲ群의 1~5)를 지표로 하는 陶質土器群이 좋은 예인데, 이러한 특징적인 高杯는 金海를 중심으로 하여 동래·진영·창원 등지에서만 발견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土器文化가 존재하는 지역이 4세기대에 있어서 이른바 金官伽耶의 영역이였을 것이다. 4세기대에 있어서 또 하나의 강력한 형식의 土器文化를 지니는 곳은 함안을 중심으로 하는 安羅伽耶地域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아직도 발굴조사등의 부족으로 이 지역의 土器文化 형식이 명확하게 구명되고 있지는 않다.

물론 지금의 경우 낙동강하류역(金海·釜山)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4세기대 문화는 조사의 미진때문에 충분히 밝혀지고 있지 않은데, 현재까지의 조사성과로 보아 4세기대에 있어서는 낙동강하류역 및 함안지역을 중심으로하는 陶質土器文化가 영남의 전역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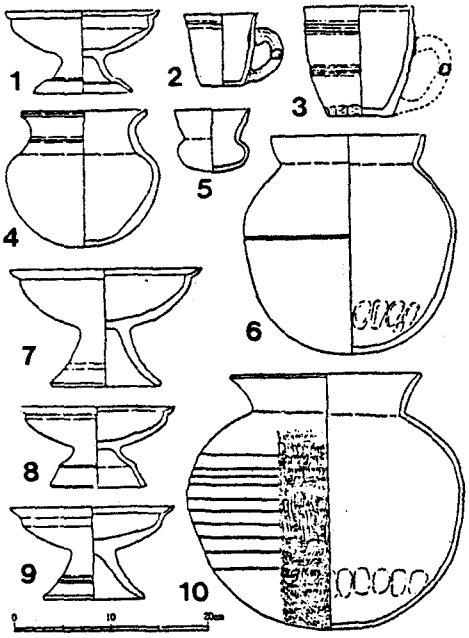
4세기대의 陶質土器文化는 낙동강하류역의 조사성과로 볼 때, 대체로 4세기전반까지는 前時期의 瓦質土器의 전통을 잇는 瓦質土器와 最古式의 陶質土器가 공존하는데, 이때까지는 여전히 瓦質土器가 우세하고 陶質土器는 겨우 圓底短頸壺(第1圖 Ⅰ群의 4)에 한정된다. 그러나, 4세기 중엽에 이르면 瓦質土器는 거의 사라지고 陶質土器가 우세를 차지하면서 小形廣口圓底壺·소형기대·통형기대·고배형기대 등과 같은 새로운 器種(第 1圖 Ⅱ群)이 나타난다. 그리고 4세기 후엽에는 전형적인 伽耶式 高杯인 上下 一列透孔 배치방식의 유개식고배(第1圖)등이 등장하면서 器種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 있다.



Ⅰ群 김해예안리 74호분
(1·2 와질, 3 연질, 4 도질)



Ⅲ群
김해 예안리 117호분



Ⅱ群 (1~4·6예안리 31호분 5·7~10예안리 86호분)
1, 5, 6, 8 연질 2, 3, 4, 7, 9, 10 도질

<第1圖> 4세기대의 토기

Ⅲ

5세기 초가 되면 伽耶土器文化에 새로이 「新羅樣式土器文化」가 분화함에 따라 이때부터 대체로 6세기 전반까지 「伽耶樣式土器文化」와 「新羅樣式土器文化」의 二大樣式土器文化로 정착하고 있음이 가장 큰 특징이다.

5세기대의 「伽耶樣式土器」는 4세기대의 土器文化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에 비해 (第2圖), 「新羅樣式土器文化」는 형태적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특징적이다. 이를테면 切頭A자형의 대각에 上下交互 배치 투공의 고배를 비롯하여, 원통형의 口頸을 가지는 장경호(第3圖 1·2·6·7) 가 대표적인 예이다. 바꾸어 말하면 「伽耶樣式土器」가 전체적으로 곡선적·여성적·평화적임에 비하여 新羅土器는 一見하여 직선적·남성적·전투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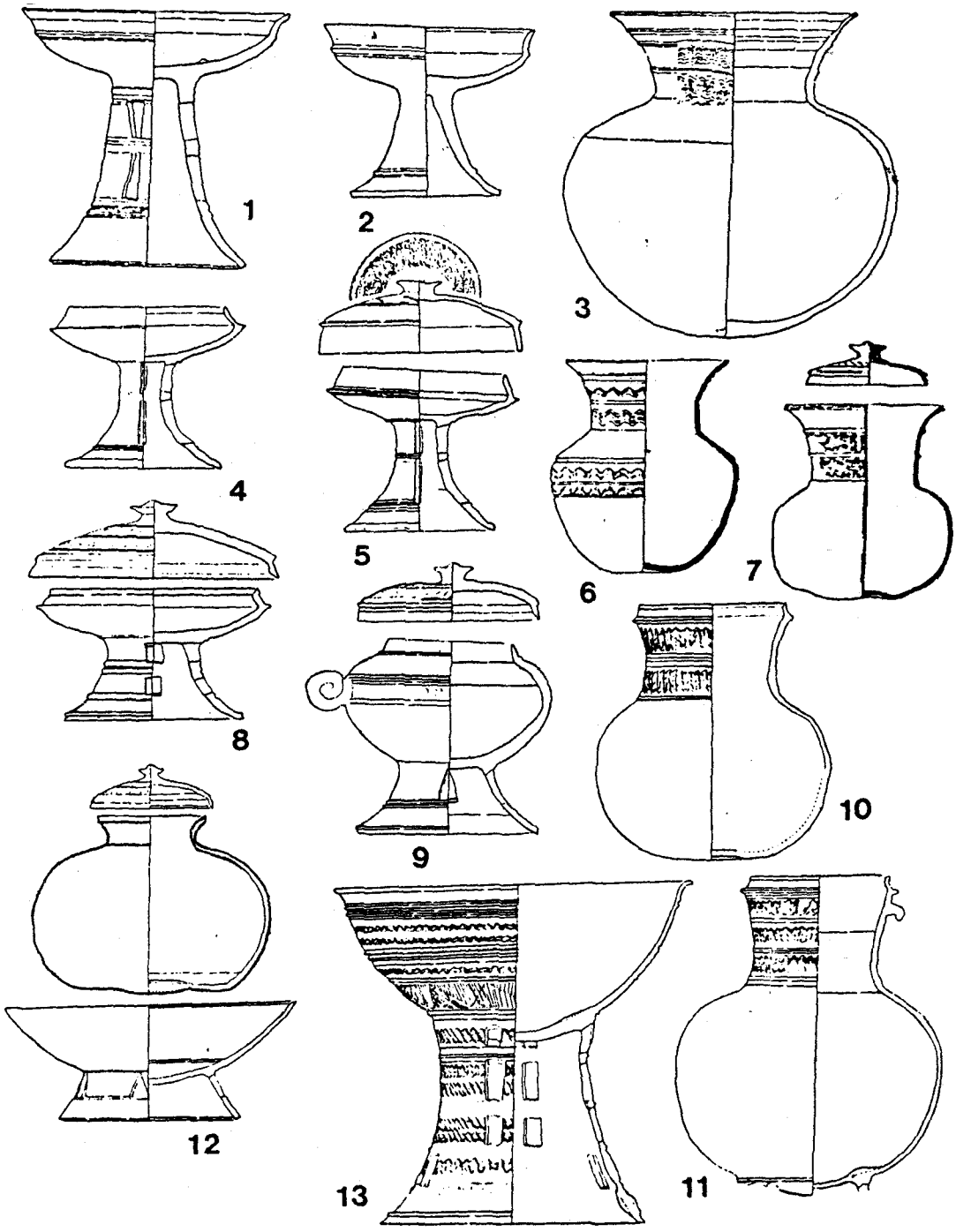
이러한 특징을 지니는 新羅土器는 5세기 초에 출현하는 징후를 보이나 경주 황남동 109호분 제3·4곽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완성된 新羅樣式土器의 출현은 경주의 특유한 墓制인 積石木槨墓의 등장과 軌를 함께 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주지역의 4세기대 土器文化가 문제로 되는데, 이것은 최근에야 겨우 몇 예 알려지기 시작한 경주지역 4세기대 토기자료로 유추한다면, 4세기대까지의 경주를 중심으로 한 新羅의 土器文化는 거의 전반적으로 낙동강 하류 및 남해안(함안)의 土器文化 영향아래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 보고된 慶州 月城路 가-6, 13호분이 이러한 좋은 예인데, 이에 대한 상세한 해명은 지금부터의 과제로 생각한다.

한편 5세기의 이러한 陶質土器 문화에 의해 영남지역 5세기대의 諸 政治集團의 동향을 엿볼 수 있다. 말하자면 伽耶地域의 경우 5세기대 이후 「新羅樣式土器文化」가 급격히 파급되는 지역은 사실상의 新羅 영향권으로 편입되는 「親新羅系伽耶」로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釜山·金海의 낙동강 하류역·창녕·경산·대구·성주가 여기에 상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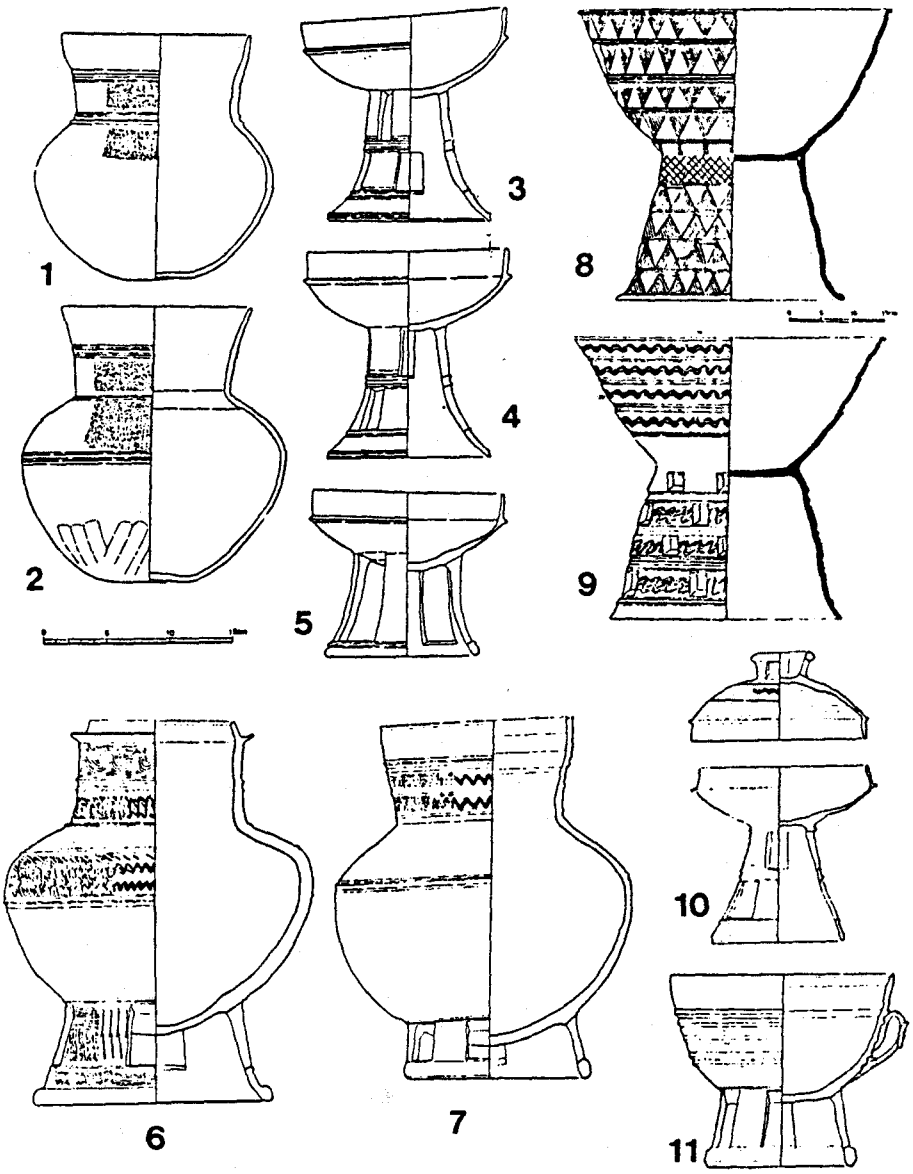
한편 「伽耶樣式 土器文化」의 지대는 다소 복잡하다. 이를테면 土器文化로 보아 5세기 중엽 이후 두각을 나타낸 고령의 大伽耶는 5세기 후엽이 되면 합천·진주·고성·함양을 포괄하는 대세력으로 성장하는데, 이와 같이 5세기 후엽이후 大伽耶의 伽耶土器文化가 정착하고 있는 伽耶집단을 「親百濟系伽耶」로 명명할 수 있다. 그런데 함안의 安羅伽耶는 4세기대에 이어 5세기대에도 영남지역의 강자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고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安羅伽耶에는 6세기 중엽의 멸망때까지 新羅양식의 토기문화와 大伽耶式 토기문화가 전혀 침투되지 않고, 安羅의 독특한 陶質土器문화가 계승·발전하고 있는 점에서 잘 알 수가 있다. 따라서 5세기대의 安羅伽耶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伽耶地域을 「親新羅系 伽耶」도, 「親百濟系 伽耶」도 아닌 「非新羅·非百濟系 伽耶」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5세기대의 陶質土器문화를 통하여 보면 伽耶는 「親新羅系 伽耶」, 「親百濟系 伽耶」, 「非新羅·非百濟系 伽耶」로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지는 것이 틀림없다.

한편 이러한 陶質土器문화는 5세기전반대의 격변기에 伽耶지역에서 이주한 도공집단에 의해 일본에서 「스에키」의 형태로서 재현되는데, 「킨키」의 초기 「스에키」는 합천·고령을 비롯



<第2圖> 5세기대의 가야식 토기



<第3圖> 5세기대의 신라식 토기 (경주미추왕릉 제5구 1호분 출토)

한 영남내륙의 伽耶지역 陶質土器문화가, 북구주의 초기「스에키」는 함안·고성·사천 등 영남의 남해안의 伽耶지역 陶質土器가 그 원류가 되었다.

Ⅳ

최근 金海 大成洞, 동래 복천동 고분군을 비롯한 낙동강 하류역과 경주지역의 4세기대 분묘

들에 대한 활발한 발굴조사 결과, 낙동강 하류역과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거의 낙동강 동안의 4세기대 甲冑는 정형화된 細長板革綴冑(第4圖 1)와 細長板革綴短甲(第4圖 3)임이 판명되었다. 이러한 甲冑의 기원은 투구로 보아 고구려를 포함한 북방의 甲冑문화에 있었다고 여겨지는데, 그러나 종장판혁철단갑과 同形의 것이 북방에 없는 점에서, 북방의 甲冑문화의 수용 즉시 영남지방의 독특한 「土着甲冑文化」로 변용시켰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형화된 4세기대 甲冑의 중심지는 지금까지의 甲冑 출토량 및 4세기대의 문화수준·철 생산력 등으로 보아 낙동강 하류역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이 4세기대 경주지역의 甲冑 제작에 영향을 끼쳤거나 또는 경주에까지 공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4세기대 영남의 甲冑문화와 동 시기의 일본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裾板 등 帶金의 사용기법이 보편화되어 정형화되어 있는 반면 (이것은 4세기대에 이미 甲冑가 대량생산되었음을 뜻한다) 일본의 甲冑는 4세기대에는 형식의 통일이 엿보이지 않고, 4세기말의 장방판혁철단갑에서부터 정형화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甲冑의 정형화에는 영남지방의 이러한 甲冑문화가 큰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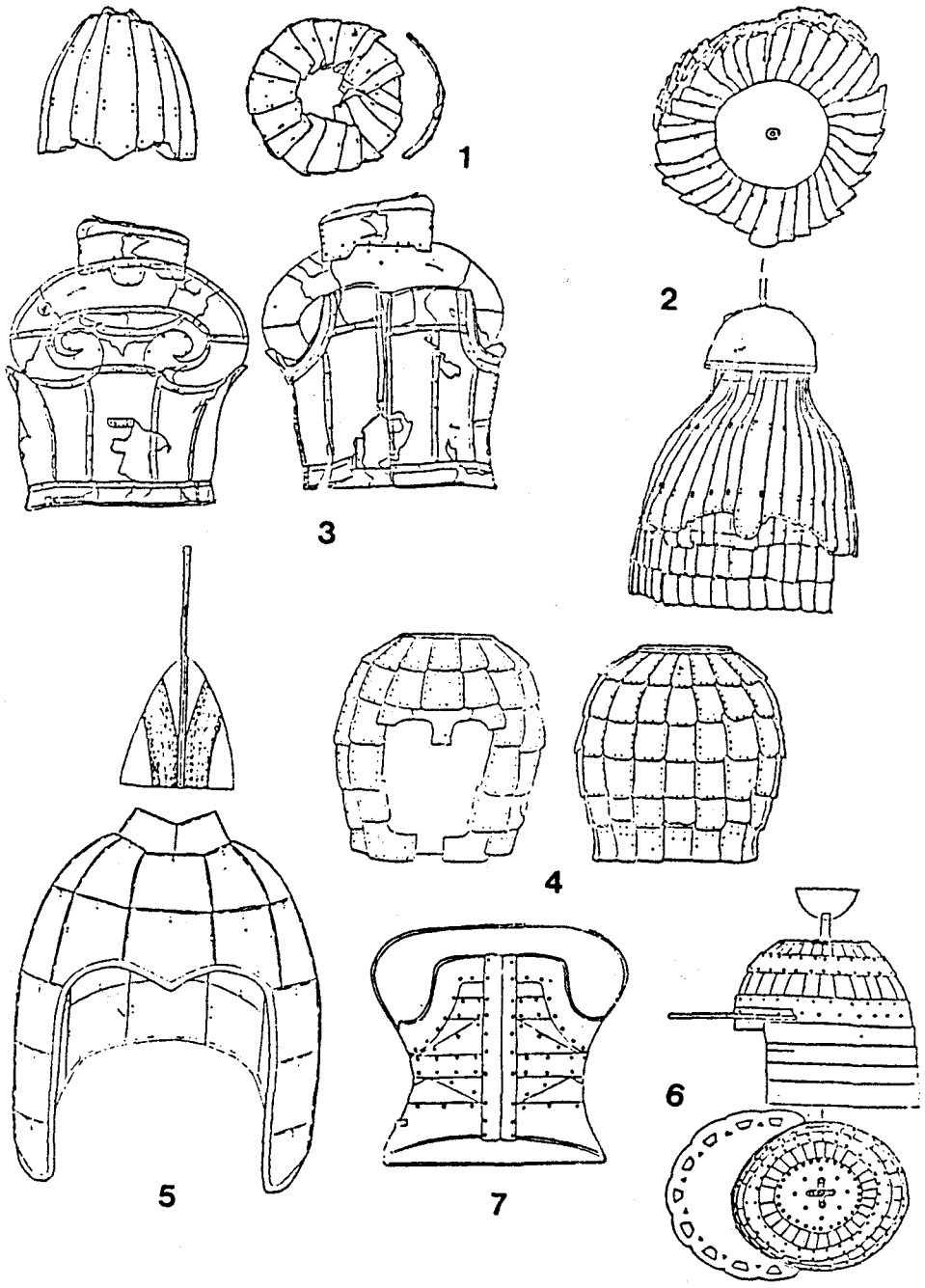
그런데 4세기말~5세가초가 되면 북방(직접적으로 고구려)으로부터 괘갑같은 우수한 기마용甲冑의 파급[補註1]으로 기왕의 「토착계 甲冑」는 그 가치를 잃어 일부 피지배계층의 방어구로 전락 하고 만다.

한편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5세기 중엽이후가 되면 新羅의 왕묘에는 실용의 甲冑가 부장되지 않음에 비해 新羅의 변방 혹은 伽耶의 수장묘에는 여전히 실용甲冑가 매납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甲冑 소유 형태의 차이는 5세기 중엽이후 新羅는 정치적인 지도자와 군사적인 실력자가 분화된 왕후귀족적인 사회로 발전하였음에 비해 伽耶는 그렇지 않았음을 여실히 반영하는 것일 것이다.

한편 영남지방 발견의 5세기대 甲冑 중 일부는 그 계보와 제작지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학계의 논쟁의 촛점이 되고 있다. 즉, 일본의 5세기대 고분에서 다량으로 발견되는 眉庇附冑(第4圖 6), 衝角附冑 및 삼각판(第4圖 7), 横長板短甲이 5세기 이후 주로 「非新羅系 伽耶地域」에서 발견된다 하여, 이른바 任那日本府説을 보증하는 자료로 취급하려는 일부 일본연구자들의 태도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甲冑는 매납상태로 보아 전부 피지배층의 방어구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토량에 있어서도 괘갑과 같은 기마용 甲冑에 비해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열세라는 점에서 5세기대에 있어서 방어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논리적인 뒷받침이 결여되고 있다. 그리고 서부 영남의 4세기대 甲冑문화가 아직 해명되고 있지 않은 이상, 미비부주·충각부주 및 삼각판·횡장판 단갑의 원류가 낙동강서안의 伽耶지역인지 일본(倭)인지 지금으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다.

어쨌든 이상과 같은 이유때문에 설혹 종국에 가서는 이와 같은 甲冑類가 일본제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임나일본부설」을 보증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는 자료로 평



<第4圖> 영남지방 4, 5세기대의 갑주(1 : 예안리 150호분 투구, 2 : 복천동 11호분 투구, 3 : 복천동 10호분 단갑, 4 : 중국 화국성 연화도 제44호분 소찰혁철 투구, 5 : 합천 반계제 가 -A호주분 투구 복원도, 6 : 동래 연산동, 7 : 함양 상백리 고분)

가할 수 없는 것이다.

補註) 최근 金海 大成洞 古墳群 발굴조사에 의해 기 내용 갑주파급시기는 再考가 필요하게 되었다. 즉 이러한 갑주는 동 고분군에서는 늦어도 4세기 중엽에는 이미 출현하고 있으며, 4세기 전반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괘갑 등의 기마용 갑주의 원류는 고구려가 아닌 다른 지역일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